

40% 문턱 못넘는 文 ... 30% 넘어 급등세 安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달렸다

'장미대선' D-33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

보수후보들 존재감 미미
다자나 양자나 구도가 변수
호남민심 기울면 승부 끝나

5·9 장미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대결 구도를 넘어 초박빙 판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이 경우, 호남 민심은 양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JT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저녁 발표한 여론조사(응답률 1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자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는 39.1%로 1위를 기록했고 안철수 후보는 31.8%로 2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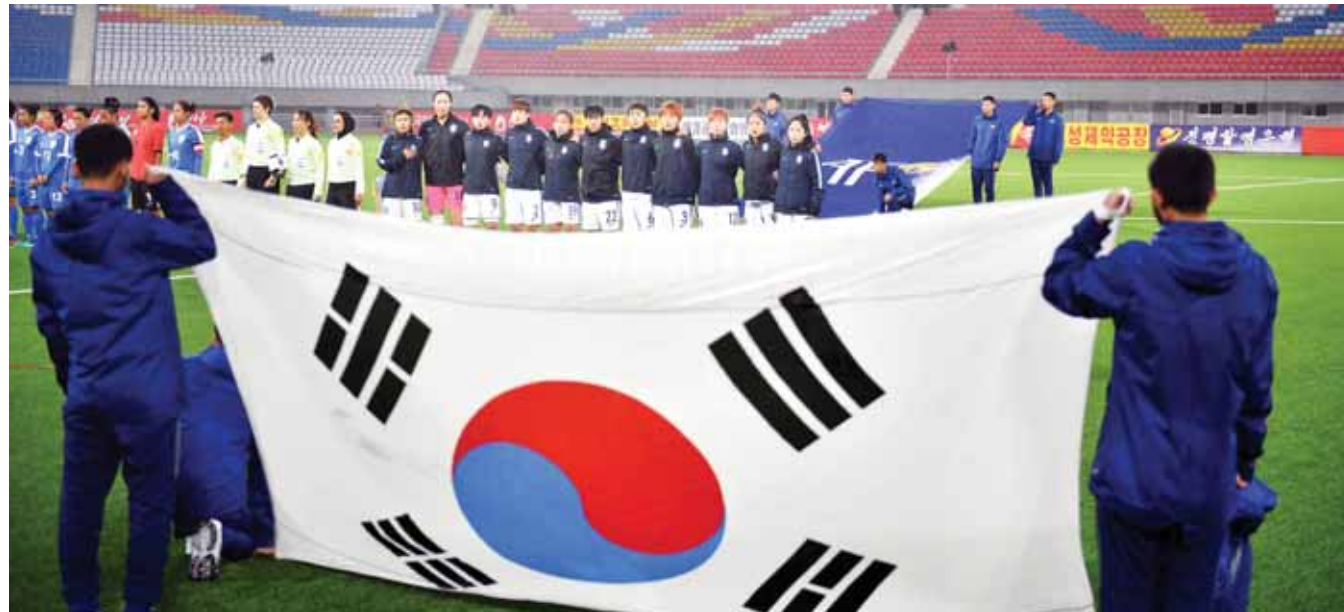
2주 전에 실시한 조사 때와 비교하면 문 후보는 39.3%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안 후보는 11.1%나 급등했다. 호남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5.1%, 안철수 후보가 39.4%로 문 후보가 더 높았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YTN과 서울신문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응답률 14.1%, 표본오차는 95%에 신뢰 수준에 ±3.1%p)는 더욱 박빙 양상을 보였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김종인 등 6자 구도에서 문 후보는 38.2%, 안 후보는 33.2%의 지지율을 보였다. 김종인 후보를 제외한 5자 대결에서는 문 후보가 38%, 안 후보가 34.4%로 집계됐다.

홍준표 후보로 보수 주자의 단일화를 가정한 4자 구도에서 문 후보가 38%, 안 후보가 36.2%의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된 4자 구도에서는 안 후보가 41%로 39%의 문 후보를 앞질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안 후보가 47%, 문 후보 40.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호남권은 문 후보 50%대 초반, 안 후보가 40%대 내외의 지지율을 보였다.(인용된 두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 문



남은 북으로 북은 남으로 5일 오후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AFC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 한국과 인도와의 경기에서 한국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태극기를 보여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위). 같은 날 오후 강원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2017 IHF(국제아이스하키연맹) 아이스하키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 II 그룹 A' 북한과 영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북한의 인공기가 게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는 경선 컨디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안 후보는 경선 이후 30%대 지지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 보수 진영 후보들은 10%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면서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의 흐름은 그동안의 문 후보의 우세 양상에서 안 후보가 맹추격,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대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야권 주자라는 점에서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지지 추세가 한 후보 쪽으로 기울 경우, 다른 후보는 급속하게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은 그동안 대선에서 중도·개혁 진영의 될 만한 후보에게 집중적 지지를 보여 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문 후보와 안 후보의 호남 민심 쟁탈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문 후보는 비문(비문재인) 정서를 토대로 하는 확정성의 한계 극복이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으며 안 후보는 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정책적 인프라 구성이 숙제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등으로 비문 진영의 연대 문제도 대선 막판 변수로 관측되고 있다. TV 토론 등 대선 경쟁 과정에서의 발언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대선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발언은 초박빙 판세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두환 등 5·18 망언 막으려면 특별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5·18 왜곡 뎀 5년 이하 징역
10개월 제 국회에 계류 중

'전두환 회고록 망언'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5·18 비방 및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관련기사 7면>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했다면, 전두환 회고록이 세상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회고록에 허위 주장을 담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선, 국회 계류 중인 5·18 특별법 개정안이 아닌 형법(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변호사 분석도 나왔다.

5월 5·18기념재단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5·18왜곡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특별법 개정안이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5·18재단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전두환이 518을 정면으로 흔들고 왜곡하는 망언을 담아 회고록을 펴낼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1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법안 통과가 안 된 이유는 옛 새누리당 측의 반발이 심했던 탓"이라며 "대통령 선거 후 국민의당이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발포명령이란 것은 없었다", "5·18은 폭동이다", "5·18 사태때 북한 특수요원들 다수가 시위대 속에 시민으로 위장해 있을 터였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피터슨(미국인) 목사,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가면을 쓴 사탄이지 성직자가 아니다, 누구의 사주로 거짓말을 하는가" 따위의 주장도 회고록에 썼다.

5·18왜곡대책위 자문을 맡고 있는 강행욱 변호사는 "전두환씨가 일반 시민이 아닌, 내란목적살인 등(5·18유혈진압)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과자라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폭동"이라 주장한 전두환 씨로 인해 5·18유공자들이 명예를 훼손당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을 낼 경우 전두환씨의 수감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육부,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절차 돌입

교육부가 조선대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갔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조선대에 '차기 이사진을 지난 1일까지 선임하지 못하면 현 이사회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사회를 상대로 청문 과정을

거친 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시이사진은 교육부가 추천하면 학부행정조정위원회가 최종 선임한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2월25일 임기 종료때까지 공익이사와 구성을 주장하는 대학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사회 임원을 선임하지 못했다.

/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반점수선 선미 집안
세월호 오늘 육상 이송 시도 ▶6면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천태산 - 이영식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책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7 PINK RUN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가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A MORE BEAUTIFUL WORLD / AMCF 20 by 20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